

「간디」思想研究, 自我로 超越하여 愛他主義에(제2회)

朴魯哲

一, 『사티아, 그라하』小論

『간디』는 獄中에서도 梵歌를 首位로하여 『싸이불』 『코란』經을 읽기에 마지 안 헛스며, 그밖에 『카라일』 『셰콘』 『라스킨』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등의 著書를 耽讀하였다. 이리하여 『마하트마·간디』는 印度敎에서 共通되는 모든 經典及 新學說을 研鑽하여 探求하기에 쉬지 안헛다. 그는 基督과 瞿曇(佛陀)을 敬慕하고 『소크라테스』의 『眞』을 同情하고 『라스킨』 『솔로』를 생각하고 『마호멧』을 알아보고 쏘는 『톨스토이』의 受動的 人道主義를 讚美하였다. 이럼으로 『간디』의 無抵抗 主義는 『사티아·그라하』(眞理의 力)에 依하여 『톨스토이』의 人道主義의 思想에 多小 相通됨은 물론 勿論이다. 대개 『간디』의 一般的 宗教思想은 印度古經 『博伽梵歌』(싸-가팔, 기타)의 哲學詩를 主로하여 『티라시다』의 『라마야나』(Ramayana) 『優婆尼娑土』(오의서) 『부란나』(푸라나 Purana)의 信念을 鍵盤으로 한바 그우에 『톨스토이』의 人道說을 加味하였고 『소크라테스』의 『眞』 쏘는 『라스킨』 『카라일』 『솔로』 등의 思想에 感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대서 그의 客觀的 信念上 그 思想이 더 深刻化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最高思想의 本營은 『셰다』 『기타』 『라마야나』 『푸라나』 『우파니사-드』 등에 더 지나지 안는다. 印度敎의 精神 쏘는 그 信念上으로 보아 그 以外의 다른것을 要치 안는다. 그러나 一般的 宗教上 信念에 잇서 서는 그 意見을 달리한다. 우에 말한바와 가티 基督, 釋迦, 『톨스토이』를 물론 하고 그 理想과 精神을 讚美하는 客觀的 一宗教人으로 보게 된다. 이럼으로 그는 말하였다.

『나는 基督教의 聖書도 回回敎의 經典도 古代波斯의 聖典 『**즈웬드아셰타스**』도 우리 『셰다』經과 가티 능히 靈感을 주는 것이라고 밋는다』 라고 이럼으로 洋人들이 『마하트마·간디』의 人格과 그 思想을 각가지로 解剖하여 혹은 基督의 博愛主義를 模倣하였다거니 혹은 『카라일』 『라스킨』 『솔로』 등의 思

想을 吸受하였다거니, 또는 『톨스토이』의 無抵抗 人道主義에 印度敎의 敎理를 加味하여 그 有名한 『사티아·그라하』를 實現시킨다는등 별별 소리가 다만케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客觀的 認識判斷에 依하여서만 批評 또는 比較한데 지나지 않는다.

『칸디』는 또 말하였다. 『나는『세다』『우파니샤드』『푸라나』其他 온갖 印度敎聖典의 名에 依하여 共通된것을 밋는다』라고. 이로 보면 그는 그 宗教思想에 있어서 主觀的 觀念보다도 客觀的 認識에있서 가장 有利한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이럼으로 그는 狹議的 傾向主義를 버서나 보담 더 廣義的 靈感世界에서 圓滿한 信仰力을 기르고져 하였다. 이리하여 宗教的 偏見에서 버서난 그는 분명히 그 主觀的 傾向主義에서 超越하여 遠대한 宇宙精神과 그 眞理를 崇仰하는 一宗教人으로 보지 안 흡수 업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다른 宗教보다도 尊重히 보는 宗教는 印度敎가 아니오 卽 印度敎를 능히 超越할만한 그런 宗教다』라고. 이 얼마나 雄大한 宗教的 思想이라하랴. 그의 말과 가티 그는 印度敎以上の 더 完全한 靈感에 依하여 體驗을 어덧으리 라고 나는 推斷한다. 그는 世上의 一般的 宗教家의 理想과는 그 距離가 매우 멀다. 그의 眞理的 追求는 그 無限性의 信念에 依하여 보담 더 眞善美를 發揮코자 遠圖하얏든바다. 이럼으로 小兒的 보통 宗教家의 眼光으로는 그의 超邁한 理想을 헤아리기도 그 힘이 미치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칸디』의 慈愛와 그 善美를 考察할새 佛陀의 仁愛와 慈悲를 들지 안 흡수 업다. 釋迦의 說法에 依하면 『憎惡는 憎惡에 依하여 遂行치안코 오직 認容의 德으로서 그 憎惡를 그치게 하나니 이것이 如來의 法이니라 惡行은 그 自身을 危殆케하되 善行은 그 自身을 安溫케하나니라 (諸惡莫作衆善奉行 自淨其意)함을 보더라도 이는『칸디』의 일은 바의 『사티아·그라하』는 결코 敵을 害코저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靜肅한 議論에 依하여 그 理智에 呼訴하며 또는 自己의 犧牲에 依하여 그 心情에 呼訴하는것이다. 『사티아·그라하』는 二重으로 祝할수잇스니, 卽 그 行實者를 祝할수잇고 그 實行하게한 者를 祝할수잇는 것이다』라 함과 共通되는 德訓으로 생각한다. 이리하여 『칸디』의 受動的 抵抗에 依한 『아히무사』의 慈悲와 釋迦의 聖訓으로서의 善愛說이 同一한 價値를 發揮한다고 본다.